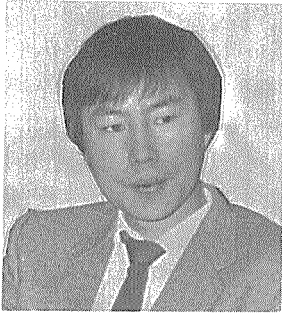


- 1990年 7月 重電機産業 -

우리나라 전기공업의 현황과 발전대책



韓國電氣新聞 取材部長
崔 在 殷

◇서언

최근의 국내重電機産業의 현실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거나, 암울한 전망을 하는 이가 많다. 내외적으로 밀려드는 갖가지 시련에다가, 이를 극복할 공업전반의 힘과 의지, 노력 등이 결핍되어 있다는 데서 나온 견해들이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건 언제 어디서라도 무한한 가능성은 부여되어 있는 법이다.

중전기산업도 현재 어떠한 상황속에 처해 있건 가능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게 마련이다.

업계에 있어 가능성은 과거에도 충분했고, 현재에도 풍부하며, 미래 역시 무한대의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소간 괴롭히는 나쁜 조건, 환경들만 탓하며, 남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안일한 생각이 문제가 되고 있을 뿐이다.

괴로운 환경, 조건은 언제나 가능성에 역행하여 발전을 저해하고 의욕을 감퇴시켜 성취를 막고 있다.

이런 역경에 주저했을 경우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으며, 조금치의 진보도 바랄 수 없다.

우리의 중전기산업은 정부의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과 서해안 개발계획, 국가전력산업의 확충계획 등에 힘입어 향후 내수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해외시장도 개척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점유율을 높여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예측에 따르면 국가경제의 대형화와 공업화에 따라 중전기분야의 내수규모는 연간 30%씩 성장하여 오는 2천년대는 현재보다 약 3배 내지 5배나 더 큰 규모로 확대된다는 전망이다.

수출도 연평균 20% 이상씩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며 노력여부에 따라서는 10년 후에 세계시장의 10% 장악을 바라볼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한다.

세계시장의 10%면 약 40억달러 규모에 달하며 우리 돈으로 환산하여 3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올해의 내수규모가 약 3조원에 가깝고, 수출은 4억달러에 육박한다고 보았을 때 향후 10년간, 즉 오는 2천년대를 바라보는 이 시기는 우리의 중전기공업 60년 역사상 가장 찬란히 성장할 수 있는 호기 중의 호기가 도래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는 데는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 수반되어야 하고, 수입개방, 고임금, 고원자재가, 기술난 등의 난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전세계에 수출된 국내시장을 단속해야 하며, 기술의 향상과 경쟁력의 배양으로 수출시장을 끝없이 개척해 나갈 일도 중요하다.

사실 국내 중전기산업의 앞날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최근들어 부쩍 늘어난 것만은 사실이다.

수시로 등락하는 달러, 엔貨와 원화절상압력 등 환율문제에다 GATT정부조달협정가입 등 내외적인 압박들이 업계를 괴롭히며 의욕을 상실케 하는 요인이 된다.

때문에 업계의 자구책, 강인한 의지력회복 외에 당국은 물론 韓電등 주요발주처에서도 전례없는 지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촉구된다.

당국은 업계측에 가능한 최근접하여 동향을 살펴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펼칠게 요구된다.

韓電은 이제껏, 미뤄왔던 送配電분야에의 투자강화와 함께 전기공업계와 호흡을 완전히 같이 함으로써 電力文化를 더욱 아름답이 꽃피우는 한편 전기공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역할이 강조된다.

◆문제점

▲고임금·고원가

지난 87년도부터 정치, 사회적민주화운동에 이어 산업민주화를 부르짖는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조건 향상노력이 드세져 격렬한 노사분규홍역을 수차례 치르면서 임금이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다.

昌原工團내의 업체들 중 5년짜리 高卒기능공이 받는 평균 임금이 잔업수당, 보너스까지 합쳐 월 95만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공단측의 통계가 있다.

전반적으로 노사분규사태 이전의 임금보다 약 50%가량의 임금인상이 단행됐다.

중전기업계도 역시 지난 3년간 상당 수준의 임금인상을 단행했다.

비슷한 예로 曉星重工業은 매년 20~30%이상의 임금을 인상해 왔고 現代重電機도 마찬가지다.

金星産電社타도 역시 그만큼 임금인상으로 원가 맞추기에 시달리며, 利川電機는 20%수준의 임금인상을 매년 단행해 왔다고 한다.

중전기 대기업 외에 중견기업, 수많은 중소기업들도 지난 수년간 고단위의 임금인상을 단행해 줄 수밖에 없었고, 원가의 압박이 가중되어 견디기 힘들 지경에 처하기도 했다.

고임금시대는 곧 제품값의 상승을 야기시키거나 품질의 저하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물가 양등폭은 두자리숫자를 훨씬 넘어서 연평균 20%에 육박하지 않을까 추정된다. 당국의 발표보다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물가양등 느낌이 그만큼 심하다.

물가상승은 곧 원자재가 등 제조원가의 압박으로까지 이어져 제조업체들의 목을 더욱 더 바짝 조인다.

정부당국은 무진 애를 써가며 물가상승, 원자재가 인상을 막으려 드나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이런 연유로 업체들은 줄어든 마진폭과 원가개념에 쫓기면서 어려운 국면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기술개발 문제

중전기계의 기술은 선진수준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기술개발을 위한 官·民·産·學·研 합동의 대대적인 투쟁이 당연히 전개되어야 할 시기인데도 기술개발이 오히려 더 등한시 된다.

선진국의 기술은 하루가 멀다하고 자꾸 발전되어 간다. 반면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니 결국 퇴보하는 꼴이다.

기술격차가 갈수록 벌어지지만 하니 선진기술을 따라잡기가 더 힘들어 아예 포기해 버리는 의욕저하가 무섭다.

특히 최근 수년간 이러한 기술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예를 들면 80년대 초반만해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술격차는 겨우 15년 내지 20년정도로 봤다.

당시 일본경제계가 우리나라의 기술발전을 상당히 경계, 곧 일본을 따라 잡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일본이 우리를 경계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을 정도다

일본인들이 우리를 경계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로 국민총합이 되지 않고 의욕이 떨어졌다는 점을 들고 있다.

현시점에서 단 한발자욱의 후퇴마저 허용치 않으며 다시 박차고 올라가는 총력경주가 없다면 기술속국이나 만년수입국으로 전락하기란 마치 불을보듯 뻔하다.

현재 우리의 기술은 대개가 日本계열이고 상당부분이 美國이나 유럽계통이다.

이를 한시라도 빨리 국산기술로 소화 개량하여 자체기술화 한후 고유기술로 토착화하지 못할 경우 기술속국의 그늘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끝없는 시험의 반복과 연구, 추적으로 핵심기술의 노하우를 발견하여 선진국이 내노라하는 고급기술을 국산화한 업체가 더러 있다.

진공밸브의 국산화가 그렇고 비록 부품이긴 하지만 UPS분야에서 도입기술을 개선, 오히려 기술도입선으로 역수출한 예 등은 업계를 크게 고무시키는 쾌거이다.

어려운 노하우를 필요로 하거나 부품 기초소재 산업화에 경제성이 우려되는 제품을 빼고는 거의 모든 전기기기가 국산화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전기기기는 그 사양이 평균 십여년을 주기로 바뀌고 기술의 급진적 혁신이 드문 종목이므로 조금만 노력할 경우 완전국산화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특정분야에서는 고유기술의 보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효율면이나 설계개선에 따른 원가절감, 소형경량화하는 문제 등이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경우 신기술을 개발하여 전혀 다른 형태의 신제품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모터, 변압기 등의 일반품목을 그 효율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신뢰도를 강화하며 소형 경량화로 원가를 절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펴고 있는 추세다.

우리의 경우 과연 이같은 질적향상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혹시 질적향상보다는 판매영업에만 더 치중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모터만 해도 회전축의 정확도가 미약할 경우 모타가 부착된 산업용 기기의 진동을 심하게 하여 제품생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효율이 떨어질 경우 전기의 소모량이 많아지고 고장이 잦아 생산라인의 중단을 자주 초래하게 된다.

변압기도 손실율이 높거나 신뢰도가 떨어질 경우

산업현장에 많은 피해를 줄것은 뻔한 일이다.

▲수입개방

지난 88년 중전기품목의 전반적인 수입개방이 단행된 이후 상당량의 외제품들이 국내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전동공구, 배선기구, 차단기류 등이 앞다투어가며 수입됐고, 특히 日産은 수입다변화 품목이라는 제도를 통해 억제했는데도 히다찌의 전동공구같은 경우 대만을 경유해 수입되는 등 편법이 난무하기도 했다.

노후즈브레카는 값은 싸지만 품질이 형편없는 대만제가 청계천시장에 널리면서 대량거래 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공진청과 전기조합 등이 이들 수입품에 대한 간접규제에 나서 품질비교 평가와 함께 홍보를 강화한 바 있을 정도다.

여기다 많은 수입상들이 난무하여 수입품의 장점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펴면서 이땅의 전기공업시장을 외제로 물들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제조업체에서도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수입품에 손대는 경우가 더러 발견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수입을 막는 길은 국산제품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는데 제조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이같은 경쟁력강화에 반하는 악조건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느낌이다.

관계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전기공업의 무역수지 적자는 80%에 달한다.

수출은 3억 6천만 달러에 머문대신 수입은 11억달러를 상회했다는 것이다.

변환기류 등 전력전자 제부품의 수입량이 많고, 이는 자동화추세에 따라 향후에도 국내에서 큰 수요가 일 것이므로 한시바빠 국산화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으로 지적된다.

국산화의욕과 함께 국산품질·가격경쟁력향상의 노력과 결실이 없을 경우 수입품들은 결국 국내시장을 회생시킬 수 없을 정도로 점유할 것이 틀림없다.

수입에 슬기로운 대처가 절실히 요구된다.

▲과당경쟁

최근들어 전기공업 모든 품목에 걸쳐 생산참여업

체가 늘어나고 있다.

업체 수 자체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존업체가 고유의 품목생산과 함께 새로운 품목에 도전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배전반업체가 정류기를 생산하거나 UPS업체에 뛰어 들며 개폐기업체가 차단기도 하는 경우 등 사업성만 있다고 판단되면 무조건적으로 생산에 참여하고 본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간다.

이에따라 수년전까지만해도 5~6개업체밖에 없던 COS업체들이 11개로 늘어났으며 가스개폐기분야도 현재 3개에서 7~8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변압기도 생산참여 업체수가 수년전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어났으며 UPS업체는 활발히 활동하는 업체만해도 30~40개 업체가 된다.

배전반은 지난 3년세에 전기조합에 가입한 업체수만 해도 1백개가 넘어 현재 1백 70개업체가 전기조합에 가입해 있다.

COS경우만 해도 새로운 업체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MOF를 하던 업체가 COS를 개발하거나 여타 전기기기를 만드는 업체가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업체수가 늘어났다. 가스개폐기도 새로이 생산에 참여했거나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업체들을 보면 대부분 여타기종을 만들어오던 기존 전기공업체인 것이다.

이와같이 요즘의 중전기공업계는 자신의 고유품목에 주력하기 보다는 상대방이 수십년간 지켜온 고유영역을 침해하면서 자신의 고유영역도 침해를 당하는 등 자기 살을 내주고 남의 살을 뺏아오는 아수라장을 연상시킨다.

이러다보니 국내 전기공업계는 전례 없이 치열한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업체들이 고유영역 하나만 지킴으로써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갖가지 어려운 여건을 맞고 있다.

그래서 60여년에 이르는 전기공업 역사 중 거의 불문율로 되어왔던 고유영역관념을 최근 2~3년만인 단시일에 과감히 깰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어찌됐던 결과론이 중요하므로 이같은 적자생존의 경쟁체제가 제대로 살려져 앞으로 강인한 체질을 가진 업체로 변모된다면 다소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어쩔수 없다할 것이다.

▲제도

각종 개발제도나 자금지원제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내포돼있다.

자금을 쓰는 업체들이나 자금을 지원하는 쪽이나 다 개선점이 있다. 업체측은 가능한 자기자본보다는 제도를 이용한 자금을 쓰려고 치중하고 자금을 끌어 쓰더라도 효과를 기하지 못한다.

예를들어 모처럼 기술개발자금으로 끌어 왔더라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그쪽으로 투입될 수 밖에 없어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무시되는 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자금을 투자할 여력도 없고 제도를 통한 자금을 사용하기도 어려우며, 담보제공능력도 없게 마련이다.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나 은행측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견된다. 단일품목에 대해서만 개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타품목과의 연결이 되지 않는다.

개발자금을 끌어 개발한 경우 대량생산 비용이 없고 갖가지 부대적인 자금줄이 막힘으로써 개발만 해둔 채 먼산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금지원으로 개발된 수백가지의 제품품 기초소재 중 제대로 시장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과연 몇개나 될까.

업체들은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거나 기타 좋은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시행청과 업체가 손발이 맞지 않아 걸치레로만 흐른다.

당국은 지정만해 준 후 모든 관리적차원에서 등한시한다. 유망업체 등에게는 제품이나 업체의 장점에 대해 주요 루트, 즉 중소기업중앙회나 해당 조합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주고 유망업체를 지정받을 경우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런 사후관리가 없다보니 수많은 유망중소업체 등이 하나의 걸치레로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단체수의계약 문제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들에게 가동율을 적정히 유지시키고 과당경쟁을 지양, 경쟁력을 강화시켜주자는 측면에서 지난 64년도에 마련됐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와 품질향상 기술개발능력 배양에 있다.

즉, 단체수의계약제도로 혜택을 받은 업체는 그 혜택을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에 쏟아 산업계 전체의 경쟁력향상이라는 효과를 봄으로써 간접환원시킨다는 게 목적이다.

때문에 단체수의계약 물량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근본취지를 망각하지 않은 차원에서 균등분배되어야 하며 기술개발과 품질관리, 수출, 국산화율 향상 등에 많은 노력을 들인 업체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초고압 업계

산업합리화조치가 완전히 해지되고 효성중공업, 현대중전기, 이천전기 등 초고압업체들이 완벽한 공급체계를 갖추었으므로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이 역시 서로 수주확대에 열을 올린 나머지 과당경쟁이 되어 원가에 압박을 주게 된다면 기술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선진국의 설계개선기술을 따라 잡아 소형경량화된 초고압제품을 만들어 원가절감과 경쟁력향상으로 세계시장을 넘겨야 할 게 업계의 주요 과제다.

현재 업계가 사안을 잘 처리하여 과당경쟁을 막는 방안으로 나아가고 있어 반가운 일이나 업계는 더욱 더 힘을 합쳐 공동기술개발체제 등을 구축, 우리 고유의 제품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된다.

▲수출

올들어 수출이 상당 폭 늘어나며 청신호를 반짝인다. 4월말까지의 누계가 1억 3천 5백만달러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 1천 1백만달러보다 무려 21%나 더 많은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동기류와 자동제어장치류 등을 축으로 상승세를 보인다.

수출은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가 맡아 할 품목이 많다. 선진국에서 높은 임금 등으로 생산기지를 후진국으로 옮기고 있는 현상이므로 기술여건도 어느정도 선진화되었으며 임금경쟁력도 아직은 여력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화한다면 많은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상공부는 韓國電機工業協會가 업계의 수출촉진

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전기공업협회는 코트라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세계시장에 유망한 품목들을 발굴, 업계와 행정부에 삼각유대관계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수출가능한 품목을 발굴하여 생산업체를 독려, 지원하고 수출시장도 코트라, 행정부, 전기공업협회, 업체가 함께 뚫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GATT 문제

韓電과 조달청, 전기통신공사 등 정부조달물자가 국제시장에 노출될 시 받는 국내 중전기업체의 타격은 실로 막대한 것으로 예견된다.

협상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상당부분의 정부조달물자가 국제시장에 노출될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도 국내업체와 실제 구매기관 등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협상에 임하는 상공부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시바빠 정부와 實구매기관(조달청, 韓電, 電氣通信公社 등), 국내 납품업체간에 가상적인 상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마련해 놓아야 한다.

GATT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여 실제 정부구매자가 국제입찰에 붙여지더라도 우리측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먼저 상대가입국의 입찰에 참여하여 획득해 올 수 있는 품목을 선정, 경쟁력을 집중배양하는 등 모종의 조치가 이미 취해졌어야 하는 것이다.

◇종합대책

모업체측 재벌기업 총수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말해 화제가 된 적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중전기업체에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다.

현실을 너무 무겁게 보아 자포자기해 버릴 게 아니라 의욕을 갖고 난국에 의연히 대처해 나갈 강인한 정신적자세가 우선돼야 한다.

물론 중전기공업의 현실에는 업계의 의욕을 저해하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電機工業界는 지나간 모든 세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현재보다 더한 위기들을 슬기와 끈기로 넘겨왔지 않은가.

1930년대 日帝가 대륙침략에 한참 열을 올리던

때를 즈음하여 이땅에 태동된 전기공업은 6·25전란과 오일쇼크, 정변(사회적 격동) 등 숱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국가전력사업의 첨병으로서 임무를 다 해왔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난제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다만 우려되는 바는 업계를 지배하던 환경이 보호주의에서 개방체제로 적자생존의 철저한 법칙이 적용되는 야생환경화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싹트는 의욕저하와 투지력 약화일 뿐이다.

닥쳐오는 환경의 변화를 고난의 마음과 현실도피로 맞기보다는 오히려 기쁨의 자세로 난국을 맞아 싸워 나가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요구된다.

▲ 행정부족

전기공업을 관장하는 상공부전기공업課와 공업진흥청 산하 단체들은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갖고 위기 관리에 돌입한 듯한 인상이다.

상공부는 공업기반기술과제 등 국책개발계획에 될 수 있는 한 전기공업품목을 많이 삼입시키려고 노력하는 외에 전기공업협회를 만들어 무언가 도움이 되게 하고, 최근에는 중전기산업 발전방안을 수립, 장기적 발전포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수동적 행정자세에서 탈피, 능동적으로 업계를 자극하고 물꼬를 터주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자세가 엿보인다.

공진청도 최근 중전기분야의 품질향상을 위해 전기조합을 품질관리 등급공장 심사기관으로 지정해주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기조합 등도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기술개발과 시장구조의 재편에 자료로 삼는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좋은 뜻으로 시행하는 일이 용두사미적이 되고마는 예가 더러있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단 한가지라도 끝까지 추적 관리하여 완벽한 효과를 보게하는 데 보다 더 힘을 쏟아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많은 돈을 들여 기술을 개발해 놓고 현실화하지 못해 사장시키는 일이라든지 중소기업우선육성성중등 공장 기업의 품격을 올려 놓기만 하고 육성에는 등한시하게 되는 등 뒷마무리가 약한 경우 신뢰성을 잃게 된다. 국민이나 업체를 다스리는 기관에게는

신뢰성이 생명이다.

육성차원에서의 신뢰성 뿐 아니라 규제차원에서의 신뢰성도 절대 무시해서는 아니된다. 한번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한번 되면 반드시 되게하는 엄격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업입국으로 가는 우리나라에 기술부문의 행정력이 다소 미약한감이 있다. 日本 통산성의 경우 관계 공무원이 3천 5백명이나 되는데 상공부는 총 6백~7백명의 공무원이 있다.

인력이 적다보니 업무량이 과다 하고, 하나를 하더라도 질적으로 높고 깊은 행정을 펼 수가 없다.

▲ 韓電측

韓電은 전기공업계에 있어 가장 큰 수요처이면서 국영기업체이다. 전기공업제품의 좋고 나쁨에 따라 韓電의 이득과 직결되는 전기의 질적문제도 좌우되므로 韓電은 전기공업을 육성할 의무가 있다.

물론 이제껏 한전자체규격을 만들고 좋은 제품을 우선구매하며 국산화課를 두고 전기기기의 국산화에 기여해온 등 많은 일을 했다.

최근들어 국산화課가 없어진 것은 업계가 불 대유감이 아닐 수 없다.

첨단 고도화로 가는 산업사회에서는 韓電의 업계에 대한 육성지도도 새로와져야한다. 업계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좋은 전기기기들을 공동개발해 나가고 기존 기기들은 서로가 함께 품질관리를 하여 품질을 높여야 한다.

發電분야에 더 치중하는 듯한 인상인데 사실은 송배전분야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 송배전분야의 질적향상으로 고장이 줄고 손실률이 감소된다면 발전소 몇개를 더 짓는만큼의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필드테스트 중인 배전자동화를 전적 도입하여 배전분야를 최첨단화하면서 업계의 수요를 넓혀주고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해야할 것이다.

韓電이 배전자동화를 실시할 경우 한전자체의 이득은 물론 국내 전력·전기관련기술을 단번에 10년은 앞당기면서 美·日등 선진국과 나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는 등 배전자동화가 가진 발전적의미는 지대하다.